

결계신고 안하면 '불이익'

'포살결계법' 시행

〈1면에서 계속〉▶포살결계법 제정에 강한 의지=이번 종회의 최대 이슈는 역시 '포살 및 결계에 관한법(이하 포살결계법)'이었다.

대중결계와 포살법회 정례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취임 당시 내건 공약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해 종단 인박으로 발생한 여러 사태로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가을 이후 총무원이 법안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관 스님은 올해 1월 중앙총무기과 교역직·일반직 종무원을 상대로 결계와 포살에 대해 설명했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종단 역점과제 중 첫 번

된 20일 분회의에 참석해 4시간 가까이 자리를 지키며 법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종회의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분회의에서 일부 종회의원 스님들이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전 종도를 대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종도들의 의견을 구하고 공청회 등 홍보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포살결계법 대상과 횡수, 권리제한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종회는 30여 분간 정회한 채 수정안 합의를 시도했다. 결국 합의한 수정안의 자구수정을 거쳐 4시간 여 만에 만장일치로 법안이 가결됐다.

▶포살결계법 어떻게 시행되나=종회를 통과한 '포살및결계에관한법'은 종단에 소속된

으며 법계를 품서 또는 승서할 수 없다.

포살결계법을 이관 받은 총무원은 법안 공포와 시행령 제정을 거쳐 오는 5월 하안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때문에 이제 관심은 포살결계법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게 될 종령 제정으로 쏠리고 있다. 논란이 됐던 결계신고 및 포살법회 장소와 포살계사 위촉방법 및 지역 요건 등 세부사항이 모두 종령에 담기기 때문이다.

▶서둘러 폐회·이월안건 수두룩=176회 종회는 포살결계법 제정이라는 굵직한 성과와 한반도대운하 반대·티베트사태 평화적해결 촉구 성명을 채택해 사회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데 적극적이었던 반면,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당초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던 종회는 3월 18일 개회해 회기를 단축하고 20일 폐회했다. 20일 열린 분회의는 포살결계법 논의에만 4시간 가까이 소요한 후 결산감사는 10여 분 만에 마쳤다. 이후 일부 종회의원 스님들이 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등 아쉬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결국 종회는 '대중사법계 특별전형 등의 건'과 '각종 위원회 구성의 건' '각종 결의의 건' 등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폐회했다.

이 과정에서 10건의 종법 제개정안과 종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종책결의 등은 차기로 이월됐다. 종회의원의 '계파간 나뉘먹기'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던 직능대표 선출자격 강화의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은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종회 개회 당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초선 종회의원 20여 명에게 50만원씩의 거마비를 건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돼 행정·입법기관 간의 적절치 못한 처사에 대해 지적이 잇달았음에도 종회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초선의원모임의 회장인 진화 스님은 "원장님에게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정했지만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승남 30년·연령 60세 이상 예외...법회 6회-2회 지관 스님 분회의장 지키며 강한 시행의지 보이기도

째 사업으로 꼽았다. 총무원은 "대중결계와 포살·갈마 시행안"을 담은 홍보물 1000부를 제작해 각 교구 본사에 보내는 등 홍보에 나섰다.

이러한 포살결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탄 건 3월 18일 열린 176회 중앙총회에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 제정안을 제출하면서 부터다. 제정안은 중앙총회 종헌준법제정특별위원회의 심의 후 종회 안건으로 제출됐고, 총무원은 2월 28일 법안을 입법고결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포살결계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종회 개회 당일 인사말을 통해 "종단 승가대중의 결계와 포살을 확대 정례화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야 할 때"라며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포살결계법을 제정했으나, 세심한 판단과 논의를 통해 심의·통과시켜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례적으로 포살결계법 논의가 이

모든 사미·사미니, 비구·비구니를 대상으로 하던 처음 법안에서 한 발 물러나 승남 30년 이상, 연령 60세 이상, 법계 종사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스님을 예외로 해 참여대상을 축소시켰다. 포살법회의 시행횟수 또한 결계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개회에서 결계기간 중 1회로 변경됐다. 이는 한 해 6회에서 2회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결계신고는 1년에 2회 결계일까지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서 하고, 결계기간 중 1회 이상 포살에 참여해야 한다.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 소임자 및 학인은 당해 학교로, 군승은 군종특별교구에서 결계신고를 하면 된다. 총무원은 연 1회 결계보고를 취합해 <결계록>을 발간하게 된다. 결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미·사미니는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고, 법령에서 정하는 각급 승가교시에 응시할 수 없

"약사원 앞 철로건설 백지화하라"

관음종 스님·주민들 포항시청 방문 항의시위 개최



관음종 스님 50여명이 3월 18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철로 건설을 반대하는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관음종 스님들이 포항시청으로 물러간 까닭은?

2009년 착공예정인 동해남부선 울산 포항간 복선화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 관음종 종정 주석 사찰인 약사원 앞에 철도가 건설되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시 연일읍 자명2리 주민들과 대한 불교 관음종 스님 등 50여명은 3월 18일 철도노선변경을 요구하며 포항시청을 방문해 항의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현재 건설중인 동해남부

선이 원안대로 자명2리를 통과하게 되면 소음과 일조권 침해 등에 따라 생활하기가 불가능하며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노선을 확정된 포항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강하게 비난하며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

약사원 주지 대광 스님은 "약사원 주변 인반은 현무암이 많고 지질 구조가 약해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낙석이 떨어져 사람 증축 때도 증장비를 합부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런 곳에 철도가 깔린다는 것은 상상

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부처님 머리 위로 기차가 지나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라며 철로건설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시위대가 해당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며 포항 시청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자명2리 마을 주민 이태연(81) 할머니가 시청 직원의 과잉 방어에 밀려 넘어져 실신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포항시청의 한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관련 부서 책임자를 자명2리 마을로 보내 정확한 진상조사를 벌이겠다"며 시위대의 철수를 부탁했다.

2시간여에 걸친 이날 시위는 포항시청 관계자의 현장 방문 약속으로 일단락 됐다. 이어 시위대는 한 나라당 이상득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같은 내용으로 항의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약사원은 종정스님이 계신 관음종의 상징적 수행도량"이라며 "철도건설이 백지화될 때까지 전 종도들과 힘을 합쳐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를 밝혔다.

포항=김주일 기자

총화종 중앙총회 개회 부총정 정승 스님 추대

대한불교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 62차 중앙총회를 3월 12일 총화종 총본사 수진사 대관음전에서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기 만료된 부총정에 정승스님(인정 정승사 주지)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정기 중앙연수 교육 및 법계고시일정, 대만 성지순례 일정 등을 확정했다.

또한 종단 해충행위자에 대해 상벌위원회에 제안 요청해 중징계키로 결의했다.

남정스님은 "오늘 종회를 기해 승려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찰, 종단 행사에 불참하는 사암 등에 대해 강력 경고 및 제재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확실한 종단의 기강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금산사 종회의원 성우 스님

무투표 당선...조계종, 정어 스님에 임명장도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김제 금산사 중앙종회의원에 성우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종회의원 재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성우 스님은 3월 21일 열린 산중총회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성우 스님은 1976년

前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현재 군산 은지사 주지를 맡고 있다.

한편, 3월 18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 제187차 회의에서 광탄·덕륜 스님이 제기한 주지후보 선출 의의신청이 각하·기각됨에 따라 조계종은 3월 19일 범어사 주지후보로 선출된 정어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턴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예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충청지사: (043)732-5560 영주지사: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태고종 종단강화 특별위 구성 결의

94회 정기중앙총회 개최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3월 20일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에서 제 94회 정기중앙총회를 열었다. 이날 개원식에서는 중앙총회의장에 인공 스님, 부의장에 원봉-대은 스님을 취임시키는 등 12대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어 열린 종회에서는 ▲종단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종무직원 임

용자격 및 직무윤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부총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사찰1선행 운동을 펼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단중흥 결의서 주인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 외 17명 특별사면복귀 단행 등을 결의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예산을 69억 3400여 만원으로 승인하고, 주요 사업으로 불교의식 한글화 작업, 영산재 세계문화유산 등록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주일 기자

訃 告

曹溪宗 元老議員 德崇叢林 方丈 圓潭 大宗師 元老會議葬 寂

大韓佛敎曹溪宗 元老議員 이시고 德崇叢林 方丈이신 圓潭 大宗師께서 世緣이 다 하시어 佛紀 2552(2008)年 3月 18日 (陰 2月 11日) 오후 9시 忠南 禮山郡 德崇叢林 修德寺 拈花室에서 法臘 76, 歲壽 83로 圓寂하셨습니다.

門徒代表 雪 靖 合掌

- 焚香所: 忠南 禮山 修德寺
- 永訣日時: 佛紀 2552(2008)年 3月 22日(陰 2月 15日) 오전 10時 30分
- 永訣式場: 禮山 修德寺
- 茶毘場: 修德寺 蓮花臺
- 問議 및 連絡處: 修德寺 041) 337-6565 / FAX 041) 337-0072

曹溪宗 元老議員 德崇叢林 方丈 圓潭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